돌아오는 암 환자

김 강 석/SBS 사회1부 차장

"세계적인 암 치료기관인 미국의 MD앤더슨 병원을 찾았죠. 폐암 치료 때문이죠.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수술했던 이진수 박사가 한국의 국립 암센터로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엄청난 치료비와 생활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럴 바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한국의 암센터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난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만났던 한 폐암 환자의 얘기다. 그동안 미국 등 의료 선진국으로 빠져 나가기만 하던 암환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 둘 씩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다른 대장암 환자는 얼마전 아들이 사는 캐나다에서 암 진단을 받고 곧장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했다. 대장암 수술의 권위자인 박재갑 박사가 국립 암센터 원장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돌아와 수술을 받고 보니 모든 게 만족스럽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그동안 암 진단과 치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던 우리나라가 국립 암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적 암진료체계가 갖춰지면서 암 검진과 치료에 많은 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930년대 이미 연방정부 차원의 암센터 등을 건립하고 국가진료 체계를 갖췄으며 일본도 30년전에 국립 암센터를 세워 암 예방과 검진 사업 등을 적극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은 암 발생률을 해마다 조금씩 낮춰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사이 암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암발생을 억제시키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의 부재 때문이었다.

경기도 일산에서 2000년에 문을 연 국립 암센터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태우 대통령시절 착수했던 암센터 건립이 10여년이 넘어서야 이뤄졌다. 건물이 완공됐음에도 문을 열기까지 5년이 걸렸다.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20년 전에 국가암검진체계를 갖추고 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늘의 결실을 보게 한 박재갑 암센터 원장은 암 억제를 위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암센터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은 높아지고 암 환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부터 전면적인 예방과 검진 그리고 치료사업에 나서지 않으면 암을 억제하거나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존립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업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에 치명상을 주는 암의 억제 사업이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함은 마땅하다.돌아오는 암 환자가 다시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해답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PPFK